

# 무심공부로 얻어낸 '숄열매'

## 산문박의 禪

올림픽 양궁2관왕 김경욱 선수



◇ 애틀랜타올림픽 양궁 결승 퍼펙트 골드를 두 발이나 명중시킨 김경욱이 마지막 화살을 쏜 뒤 우승이 확정되자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고 있다.

“금메달을 향해 뛰었다.”

지난 1일 애틀랜타 스포츠마운틴 공원 양궁 경기장에서 TV를 통해 경기를 지켜보는 한국인은 모두 김경욱(26 현대중공업)에게 이같은 주문을 했다. 그리고 그녀의 화살이 타겟의 황금색 부분에 꽂힐 때마다 환호했다. 기어이 그녀는 '신공'의 경지를 뚫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올림픽 일정 중반 이후 6일간의 공백을 딛고 금메달 소식을 전해 그녀의 승전보는 정말 금쪽같이 귀한 것이기도 했다.

양궁용어에는 없던 '퍼펙트 골드'란 신조어를 금메달과 함께 목에 건 김경욱은 이틀후 단체전에서도 '신공'의 승세를 유감없이 발휘해 이번 올림픽의 양궁2관왕 스타로 세계인에게 기억되게 됐다. 일관된 일이라는 화살의 퍼펙트 골드를 결승전 한 게임에서 두번이나 봐 보였던 그녀는 호를

### 퍼펙트골드 환호에 '조용한 미소'로 기쁨 표현 "주인공에 맡겨라" 당부하신 어머니 말씀 '큰힘'

갑스레 기뻐하지 않았다. '조용한 미소'로 다음에 쓸 화살을 준비할 뿐.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들이 생각났어요. 서너번의 좌절이 오늘의 금메달을 안겨준 것이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이든 서너번은 해봐라 제대로 되는가 봐요." 어쩌면 그녀는 사대(射臺)에서 70미터 밖의 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려 보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88년 선발전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한 탈락, 89년의 어깨근육 파열로 인한 좌절, 92년 바르셀로나 선발전의 탈락 등 불행했던 과거를 향해 40파운드의 강궁 시위를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이거든요. 시위에서 화살이 떠나기 직전의 마음이 편하면 명중률이 좋은 거고 잡다한 생각에 휘말리면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만다." 김경욱은 다른 선수에 비해 강도높은 훈련을 하면서도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최고의 훈련으로 생각해 왔다. 일본 17년째인 올해 세계최고의 자리에 오른 김경욱은 지난 8일 오후 김포공항에 마중나온 어머니와 포옹을 한채 "이 금메달은 엄마 아빠의 것"이라는 효성도 보였다.

임연태 기자

“시위를 당기는 순간 생각의 자리는 텅비고 내가 화살이 되어 타겟을 향해 날아가요”

화살은 심의 세월을 헤치고 그녀가 일어났듯 험차게 바람을 가르고 아픔의 가장 한가운데에 꽂혔다. 그로써 아픔은 완전히 끝났고 사람들이 '퍼펙트 골드'를 환호하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 것이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최선을 다해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김경욱 선수는 기회를 더이상 놓칠 수 없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불안해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안으로 삼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여러번의 좌절이 가져다 준 교훈이었다. 그녀는 “장애로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대회를 치렀다”는 말도 했다. 그녀의 가슴속에서 아버지에게 금메달을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지워진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 날 “모든 것은 잘 될 것이지 걱정 말아라. 네 주인공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최고의 선수란 믿음을 놓지 말아라”하던 어머니의 부탁도 언제나 귓전에 맴돌았다고 말했다.

결승전에서는 긴장되어 감독에게 “팔을 좀 꼬 집어 달라”고 주문해야 했던 김경욱,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노력을 가졌기에 그녀는 세계최고의 자리를 차지 했던 것이다.

70미터 건너편의 과녁, 직경 1미터 22센치의 둥근 표적지를 사대에서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아무 생각이 안들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긴장되고 최선을 다 하지는 생각도 들지만 막상 시위를 당기는 순간엔 오직 타겟만 보일뿐 생각의 자리는 텅비게 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의식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화살을 쏘고 그 순간 나도 화살이 되어 타겟까지 날아 갑니다.”

화살이 표적지에 꽂히는 순간에야 다시 사대에 선 자신으로 돌아 온다는 김경욱은 이번 개인전에서 결승전보다 힘겨웠던 16강전, 8강전을 모두 ‘안정된 마음의 유지’로 극복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어떤 경기보다 양궁은 순간의 마음에 승패가 달린

### 유전병 치료하면 업보도 녹나요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인자에 대한 비밀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유전적 불치병에 대한 치료법도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유전병이란 과거의 오랜 인과에서 비롯된 업보일 터인데 과학의 힘으로 업보를 녹이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21세기에 기면 과학이 대부분의 병을 퇴치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나아가서는 유전공학적 조작에 의해 새로운 생물종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합니다.

(허완도·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무리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물질을 찾아낸 것이지 난치병이 어떻게, 왜 그 사람에게 생겼느냐는 연관성을 아는것은 아닙니다.

실사 새로운 물질이나 새 방법을 찾아내서 치료의 길을 열었다고해도 인과의 씨앗은 억지않으니 다른 형태로, 다시말해 다른 모양의 질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과학은 결코 그런

아, 누가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효력이 있다고 전해놓는 것 뿐이지요.

진언이라면 쉽게말해 진짜 말, 참말인데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참된 길은 마음 길 뿐이요 참된 말은 마음 밝히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좋은데로 보내달라고 빌고, 고통에 빠졌으니 건져달라고 빌고, 명이 짧다고하니 명종 길게 해달라고 빈다면 그게 진짜 말이겠습니까?

진언은 진언이라는 이름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은밀한 내용이 담겨져 주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밝히는 말하기에 참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언을 외더라도 노예로서의 진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지장보살을 찾아야 한다. 어려운 일이 닦혔으니 관세음보살한테 진언을 해야한다. 병이 났으니 약사여래 찾는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칠성도 찾아야하고 용왕도 찾아야하고... 우리들 삶의 용도에 따라 온종이 이것 찾고 저것 찾는 노예같은 신세가 되고 말게 아닙니까?

말씀드리지만 나의 살림살이 모든 것은 마음 한군데서 나오고 들어갑니다. 누가 가져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림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상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이음선원 대행스님에게 고담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일들의 대안이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같은 과학이 아닌 진파과학-나는 그것을 심성과학이라고 합니다. 마음도리로 들어가는 과학이 아니라고는 안됩니다.

과학이 병의 원인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온 줄도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야 어찌 그 뿌리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아다시피 모든 생명체는 진화를 합니다. 가령 미생물이나 곤충들이 농약에 대해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새로운 변종이 나오는 것만해도 그 나름으로는 진화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농약을 써서 죽게 되니까 아하! 저것에 대처하지 못하면 살수가 없었구나 해서 다른 형태로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과학으로 따라잡겠다는 것은 숭바꼭질과 같은 셈이지요. 자주 툭다보면 더 은밀한 장소를 찾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도리를 공부하고 '나부터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를 녹이는 길은 오직 마음공부 밖에 없습니다. 마음공부를 통해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게되면 무슨 백혈병이니 골수암이니 하는 것은 다 이렇일 뿐입니다.

### 진언은 무엇이며 효력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경에도 진언이 많이 있습니다. 또 디리니경 같은 것은 주력이 있다하여 예불중에 빼어놓지 않고 외우는데 진언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효력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중은·서울 강남구 삼성동)

다주는 것도, 누가 그렇게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받았든 못받든 나의 근본 뿌리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다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갖다 준 것이라면 도로 가져가라든가, 더 달라든가 할텐데 계속에서 나온 것이니 제 스스로 꾸러기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자기를 요렇게 만들어 놓았고 자기를 이리저리 끌고다니는 그놈-체가 없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놈하고 해결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명이 짧다고 하면 짧은대로 그놈-나는 주인공이라 합니다만 그놈보고 짧게 만든 것도 너, 길게 할 수 있는 것도 너이니 네가 알아서하라.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말겨놓으라는 말입니다.

몸이 아파도 마한가지입니다. '병도 너만이 갖게 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너 되게하는 것도 너'라고 안으로 돌려 놓는다면 그 말이 일종의 진언인 것입니다.

밖으로 떨어지는 진언은 진언이 아닙니다. 진짜는 안으로 돌려 놓는게 진언인데 그러면 그 효력이 있다하니까? 내 마음은 우주법계에 가득한 일체제물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있어서 마음과 마음으로 전부 통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효력이 있다고하면 금세 잘되는 것만 연상하시겠지만 되는 것도 법이요 안되는 것도 법입니다. 되고 안되고는 너 기준이지 법계의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으로 돌려 놓는것, 그것으로 여법한 것이며 그럴때 진언은 진언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말은 결코 진언이 아닙니다.

### 천혜의 전원주택



주택전문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방150m) 예당 저수지 33만평
- 지목: 대지 + 전 (76 + 204 = 280평)
- 가옥상대 A급 (정원 잔디 + 조경 + 인공저수지2평)
- (현대식) 돌담집: 집앞 채전과 차고 있음.
- 집앞에 시원한 광활한 저수지(예산읍에서 15분거리)
- 현재 사람 살고 있음. 최고 A급 전원 주택
- 금액: 4,800만원

### 투자할 만한 전원 주택



-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금액 2,800만원
- 지목: 대지 + 전(대지164평 + 전218평)計 382평
-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거리
- 2차선 포장 도로에서 100m 위치
- 집앞에 200지점 큰 저수지가 있고, 집 뒤에는 산이 있음
- 주위 경관수려, 달래강 근접

연락처 TEL: (02) 420-5474~5 FAX: (02) 413-7295 B.B: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 대원불교대학

####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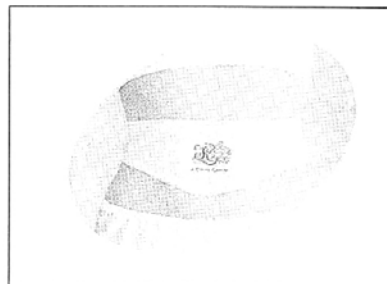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7시~8시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 교 과 목  
◆ 1학년 2학기 :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 2학년 2학기 : 의식실수, 불교상당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Ⅱ
- ◆ 연구과정 2학기 :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전 : 졸업후 1.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2. 소정의 법사교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3.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랍니다.

### 대원불교대학

주소: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756-7258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사용법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껌을 배꼽에 차머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아가 임마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생리통,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딱하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 있다. ( )
- 18. 당뇨위험성선으로통발한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